

研究論文

# <유취현전>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

김재웅\*\*

I. 머리말	V. 맺음말
II. 작품의 내용과 서지사향	<참고문헌>
III. 작품의 구조적 특징	<국문요약>
IV.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	

## I. 머리말

새로운 작품을 발굴해 소개하거나 연구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손쉬운 방법은 작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비록 새 작품이 아니더라도 텍스트를 충실하게 이해하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다루게 될 <유취현전><sup>1)</sup>은 최근에 필자가 발굴한 작품이다. <유취현전>은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된 작자 미상의 국문 필사본 소설로, 아직까지 이본 목록에도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이다.<sup>2)</sup>

\* 이 글은 한국고소설학회 제69차 정기학술대회(2005. 4. 30. 서강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필자의 글을 꼼꼼하게 읽고 지정토론을 해준 조광국 선생님과 자유토론을 해준 우쾌제, 임치균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고전소설 전공(kimjw@kmu.ac.kr).

1) 이 작품의 표제는 <유취현전나라>로 되어 있고 비교적 규칙적인 정자체로 필사되어 있다. 작품의 분량은 총 58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면에 12줄, 한 줄에 26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2)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집문당, 1999). 이 책에서도 <유취현전>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계

그런데 <유취현전>의 제목과 서지사항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취현전>의 이본은 10종인데 모두 국문 필사본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유취현전>과 내용이 유사한 <정을선전>까지 포함하면 작품 수는 백 여중에 이른다. 물론 아직까지 두 작품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로 <정을선전>에서 <유취현전>이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3)</sup> 그렇다면 <유취현전>이 언제, 무슨 이유로 <정을선전>에서 파생되어 독자적인 제목을 가지며 유통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본 관계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이다.

<유취현전>은 주인공 유취현이 계모에게 박해를 받아 자결한 뒤에 재생하고 다시 후처의 모함을 받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고난이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 수난이 강화된 작품은 전·후반부에 각각 계모형, 쟁총형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기 가정소설의 성격을 보여준다. <유취현전>은 기존 가정소설의 두 유형을 하나의 갈등구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조의 변모와 서사단락의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계모형과 쟁총형 가정소설의 유형구조를 수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재창출하려고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취현전>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조선후기 가정소설을 논의하면서 <정을선전><sup>4)</sup>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유취현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sup>5)</sup> 작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어 작품의 발굴이 쉽지 않은 점과 활자본으로 출간되지 못한 점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 이본 관계에 있는 <정을선전>이 가정소설을 논의하는 과정에 포함된 것도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작품 발굴이 손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작업은 가정소설의 저변확대

명대 소장본 <유취현전>에 대한 기록만 등장한다.

- 3) 임성래, 「<유취현전>고, 『연세어문학』, 17집(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52~55쪽.
- 4) 가정소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을선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쾌제,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1989);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1988);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집문당, 1996);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1991);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양상, 서울대 박사논문(1995); 이성권, 「가정소설의 역사적 변모와 그 의미, 고려대 박사논문(1998).
- 5) 임성래, 앞의 논문, 45~67쪽. 여기서 <유취현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유취현전>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취현전>과 <정을선전>의 이본을 비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취현전>의 유형구조를 계모형, 쟁충형, 여성의 수난이 확장된 구조로 구분하여 구조적 통합과 작품의 변모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서 가정소설의 지평을 확장해나가는 소설사적 의미까지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작품의 내용과 서지사항

### 1. 작품의 줄거리

㉑ 송나라 죽림촌에 재상 유현춘은 나라의 녹을 받는 신하였으나 자녀가 없어 근심한다. 부인 최씨는 천상 선녀가 아기를 주는 꿈을 꾸고 딸 최현을 낳는다. ㉒ 병이 든 최씨는 딸의 앞날을 예측한 뒤에 남편에게 재혼해 후사를 정하고, 딸을 도와달라고 당부한 뒤 세상을 떠난다. ㉓ 유승상은 정씨 부인과 재혼하여 아들 경의와 딸 경선을 낳았다. ㉔ 이때 이승상이 유승상의 딸 최현에게 청혼한다. ㉕ 이 때문에 계모는 최현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밥과 비상소주 및 노비 돌춘을 매수하여 살해했으나, 오히려 제 자식만 죽이게 된다. ㉖ 이승상의 아들 이적은 과거에 급제해 최현과 혼례를 올렸으나, 첫날밤에 계모의 지시를 받은 돌춘의 협박으로 떠난다. ㉗ 그래서 간부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결한 최현의 혼령이 계모와 돌춘을 죽인다. 그때 승상도 죽어 안장했으나, 유취현의 혼령이 동네에 떠돈다. ㉘ 한편 장승상 집에 머물던 이한림은 청주어사를 제수 받아 불안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떠난다. 패망한 죽림촌에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어사는 최현을 만나러 간다. ㉙ 그런데 최현은 천자가 그녀의 정열을 칭찬하며 관리를 보내 원정을 풀어준 뒤에 어사를 만난다. ㉚ 어사는 정성을 다해 아내를 환생시키고, 천자는 어사의 장계를 보고 유취현과 장씨에게 충열부인과 정열부인을 봉한다. ㉛ 시어머니가 아들 먼저 낳은 며느리에게 선영 봉제사를 맡기겠다고 선언하자, 정열부인은 임신한 충

열부인을 해친다. ㉠ 마침 서번의 침공으로 대원수가 된 이적은 군담을 통해서 도적을 진압한다. ㉡ 한편 정열부인은 시비 금선을 매수해 속양의 대가로 충열부인에게 간음죄 누명을 씌운다. 시어머니는 충열부인을 궁문하고 옥에 가둔다. ㉢ 시비 금연은 충열부인의 편지를 오빠에게 전해주고, 초매와 함께 은신처를 만든 뒤에 충열부인 대신 자결한다. ㉣ 충열부인은 은신처에서 출산한 뒤에 사경을 헤맨다. ㉤ 승전한 이원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인과 아들을 구한 뒤에 금선과 정열부인을 죽인다. ㉥ 천자에게 편지하여 시비 금연과 초매를 위해 충노비를 세운다. ㉦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오를 생각해 식음을 전폐한다. 충열부인이 시어머니를 위로하여 행복하게 지낸다. ㉧ 이승상은 소년 당상하고 천자는 승상을 지모충열지신이라 칭찬하며 벼슬을 내린다. ㉨ 유취현의 모친은 선녀가 되어 딸의 영낙과 수복이 무궁함을 당부하고 친정의 백골과 선산 수호를 딸에게 부탁하며 친정부를 넘겨준다. ㉩ 승상 부부는 천상의 신선과 선녀같이 부귀영화를 누린다.<sup>6)</sup>

이상에서 <유취현전>의 줄거리는 후기 가정소설의 유형에 속한다.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구조도 전·후반부로 뚜렷이 구분된다. 전반부는 ㉠~㉣까지로 계모형 가정소설의 구조를 보여준다면, 후반부는 ㉤~㉩까지로 쟁충형 가정소설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 때문에 작품의 구조적 통일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계모형과 쟁충형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완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작품의 구조는 부분과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유기체라고 할 때 <유취현전>은 기존 가정소설의 구조와는 분명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2. 이본관계 및 서지사향

위에서 제시한 <유취현전>의 줄거리는 전반적으로 <정을선전>의 내용과 유사하다. 두 작품은 동일한 구조를 내포한 이본관계로 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은 구조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서사 단락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동일한 갈등구조 속에서

6) 본고에서는 계명대본 <유취현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7) 이원수, 「가정소설의 전개양상」, 『고소설사의 제문제』(집문당, 1993), 325~326쪽.

세부 단락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작가의식과 주제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취현전>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조적 공통점과 세부 단락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취현전>의 이본은 필사 과정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정착되었을 뿐, 전반적인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유취현’, ‘유취연’, ‘유치현’, ‘취연’, ‘유소저’ 등과 같이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나 호칭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고소설의 대부분이 주인공의 이름을 표제로 삼은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남성 주인공의 이름을 표제로 사용한 <정을선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이본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물론 표제로 삼고 있는 <정을선전> 중에도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 있고, <정을선유치전>과 같이 남녀 주인공의 이름을 동시에 표제로 내세운 것도 있다. 따라서 <유취현전>, <취연전>, <정을선전>, <정을선유치전> 등은 남녀 주인공의 이름을 표제로 삼은 동일 작품의 이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유취현전>과 <정을선전>을 비교하여 이본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두 작품의 공통점보다 세부 단락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이본의 거리를 규명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10종<sup>8)</sup>의 이본 가운데 계명대본 <유취현전>이 가장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이 작품은 서사단락이 다소 침삭되거나 확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본(善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9)</sup>

- ① <유취현전>(계명대 소장본), 경신년 정월이십오일중
- ② <유취연전><sup>10)</sup>(계명대 소장본), 합천군 박곡 이군범, 책주 유술양
- ③ <유치현전><sup>11)</sup>(나손본 40권), 정축연 시월초납일
- ④ <취연전><sup>12)</sup>(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74권), 기유운이월염육일
- ⑤ <취연전><sup>13)</sup>(연세대 소장본), 기유운이월염육일

8) 이수봉 소장본 <유취연전>, <劉翠賢傳>은 필자가 구해보지 못했다.

9) <유취현전>은 전반적인 서사 구조를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세부 단락에 약간의 침삭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잘 씌어진 필체로 오탈자가 적은 편이다.

10) <유취연전>은 64면으로 되어 있으며 한 면에 10줄, 한 줄에 22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11) 이 작품은 총 46쪽이고 앞부분과 중간에 낙장되어 있다.

12) 이 작품은 총 111쪽인데 한 면에 9줄, 한 줄에 23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 ⑥ <유치현전>(연세대 소장본), 신해 시월구일
- ⑦ <정을선유치전><sup>14)</sup>(정명기 소장본), 신사 이월초삼일
- ⑧ <유소저전><sup>15)</sup>(하버드대 소장본), 무오년 이월
- ⑨ <정을선전><sup>16)</sup>(계명대 소장본), 계모충춘염칠일, 순창사인
- ⑩ <정을선전><sup>17)</sup>(계명대 소장본), 계축 십이월구일, 책주 모학을
- ⑪ <증을선전><sup>18)</sup>(하버드대 소장본)
- ⑫ <정을선전>(활자본 고전소설전집 10권)

먼저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제목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취현전>은 서두에 여성 주인공이 먼저 등장하는데 반하여,<sup>19)</sup> <정을선전>은 남성 주인공이 작품에 먼저 등장한다.<sup>20)</sup> 전자는 여성 주인공이 태몽과 함께 천상 징표를 가지고 출생하고, 후자는 남성 주인공이 태몽과 함께 천상 징표를 가지고 출생한다.

(가) 송나라 시절의 영종덕왕 즉위 십삼연니라 청주 죽림촌의 한 지상이 잇시  
 되 성은 유요 명은 현춘니요 즈난 성종이라 세되로 국녹제신으로 벼살이 일품  
 이라...한 부인니 청학을 타고 내려와 최부인 것턱 안즈 가오되 옥황상계 선여  
 읍드니 드러니 부인니 남녀간 즈속이 업서 쥬야 혼탄헛미 악이을 다려왔난이  
 다 품으로 악이을 너여 부인을 쥬면왈 이 악이난 천상 북두출성의 말지 쌀이  
 읍드니 상계계 득죄하고 인간의 너쳐시미 다려왔시니 이 악이을 탄싱헛겨든  
 일흠을 최현니라<sup>21)</sup>

---

13) 이 작품은 총 58쪽이고 한 면에 9행, 한 줄 20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14) 이 작품은 총 54쪽이고 한 면이 12행, 한 줄에 20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소설의 기초 연구』(태학사, 2001), 429~430쪽. 이 작품은 총 71쪽으로, 한 면에 8줄, 한 줄에 15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16) 이 작품은 총 66쪽이고 한 면에 15줄, 한 줄에 21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17) 이 작품은 총 61쪽으로, 한 면에 11줄, 한 줄에 21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으며 내지에는 “임자 십 일월 이십오일”이란 기록이 있다.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429~430. 이 작품은 상하권이 각각 32장, 7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여기에는 ①~⑦, ⑨의 이본이 해당된다.  
 20) 여기에 해당하는 이본은 ⑧, ⑩~⑫, 김광순본 <정을선전> 18권(441~540쪽)과 50권(513~594쪽), 조동일본 <정을선전> 10권(235~366쪽), 영남대본 <정을선전>, 박순호본 <정을선전> 88권(243~340쪽) 등이다.  
 21) 계명대본 <유취현전>, 1~2쪽.

(나) 대명 가뉘년간에 해동 조선국 경상좌도 계림부 자산촌에 일위 재상이 잇스되 성은 정이요 일흠은 진희라 잠령거족으로 소년등과 하야 벼살이 상국에 이르러 명망이 쟁야에 진동하더니 시세변천함을 인하여 법강이 해이하고 정령이 몰관하야 군자의 당은 자년 물너가고 쇼인의 당이 덤덤나아옴으로 풍진 환로에 쫓시업는지라...다만 슬하에 일점혈육이 읍기로 매양슬퍼하더니...비몽사몽간에 하날노셔 홍의동자 날려와 부인 압혜 쏠어채배왈 쇼자는 남해 용자 읍디니 상제의 득죄하와 진세에 내치시니 갈바를 아지 못하야...훈미중 일개 옥동을 나흐나...을선이라<sup>22)</sup>

위와 같이 두 작품의 제목은 태몽과 기자치성을 통해서 먼저 출생하는 주인공의 이름과 일치한다. 초반부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작품의 제목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작품의 제목으로 선정된 인물에게만 천상징표와 기자치성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⑨ 계명대본 <정을선전>은 제목과 다르게 여성 주인공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서 주목된다.<sup>23)</sup> 이렇게 작품 초반부에 주인공이 태몽과 천상징표를 가지고 출생하는 대목은 제목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사건 전개 of 핵심을 담당한다. 따라서 작품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의 태몽과 천상징표는 표제 설정과 이본 계통의 변모에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여성 주인공이 부친 산소에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성 주인공이 이들과 함께 친정 부친의 산소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는 대목이 첨가된 작품과<sup>24)</sup> 생략된 작품으로 구별된다.<sup>25)</sup> 그런데 <유취현전>의 여성 주인공은 모친의 뜻을 받들어 친정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는 ‘친정부’를 받는 대목을 통해서 선영 봉제사를 암시하고 있다. 선영 봉제사 대목은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22) 활자본 <정을선전>, 3~5쪽.

23) 계명대본 <정을선전>, 1~2쪽. 각설 송문제 즉위시의 익군 쌍의 한사람이 잇시되 성은 유요 명언 한경이라...나이 반백이 되도록 실하의 일점 혈육이 업서 쟁야...미양 실퍼하더니...비몽간의 엇디 한 선여들어와 부인젓티 안지며 계화일지를 주어왈 나난 월궁선여옴던이 황하의 명을 바다 이고 디와 계화를 부인전의 전호오니 부디 잘간슈하옵소서 호고 간디업거날...그달보름 티기잇서 십식만의 용여를 탄싱하니 인물이 비범호고 덕힘이 잇난고로 사랑호여 일흠을 취연이라. 이러한 현상은 영남대 소장본 <정을선전>과 박순호본 <정을선전> 89권에서도 나타난다.

24) 여기에는 이본 ④, ⑥, ⑦, ⑨, ⑪, ⑫ 등이 속한다.

25) 여기에는 ② 계명대본 <유취현전>, 김광순본 <정을선전> 50권, 조동일본 <정을선전> 10권, 박순호본 <정을선전> 88권 등이 속한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필사과정에서 생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대목의 침삭 여부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의식까지 변할 수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취현전>의 계모가 전처 딸을 모해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④ 나 손본 <취연전>과 영남대본 <정을선전>은 유승상과 딸이 사망한 전실 부인을 생각하여 계모가 그 서러움 때문에 딸을 모해한다. 이렇게 남편과 자녀가 전처를 생각하는 데 불만을 품고 계모가 전처의 딸을 모해하는 경우는 <장화홍련전>에 잘 드러난다. 그런데 <유취현전>에는 계모가 자기 딸의 인물됨이 부족해서 전처의 딸을 모해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본은 ①, ②, ⑨, ⑪, ⑫, 박순호본 <정을선전> 등이다. 따라서 <유취현전>의 갈등은 대부분 청혼과 연관된 배다른 어머니가 낳은 딸의 인물됨에 대한 대립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상에서 <유취현전>과 <정을선전>은 동일 작품의 이본관계에 놓여있지만, 세부 단락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작품은 표제와 남녀 주인공의 등장 순서, 태몽을 포함한 기자치성과 천상징표, 친정의 선영 관리와 제사, 계모형 갈등의 원인 등에서 서사단락의 침삭이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은 작품의 필사과정에서 침삭되거나 변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중에서도 친정의 선영 관리와 제사 대목은 쉽게 침삭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정을선전>보다 친정에 대한 관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서 여성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두 작품의 이본을 종합해 볼 때 <정을선전>이 선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의 이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정을선전>이 인기를 끌다가, 어느 시점에서 <유취현전>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이러한 현상은 주인공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던 조선후기 사회사의 변천 과정과 동일한 궤적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유취현전>이 선행했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유취현전>은 여성 주인공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을 반복함으로써 조선후기 여성의 수난을 확장하여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유취현전>은 여성 주인공을 표제로 내세워 당대의 독자층에게 여성 수난의 고통을 반복함으로써 권선징악을 뚜렷이 부각하는 한편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6) 임성래, 앞의 논문, 45~67쪽.

그렇다면 <유취현전>은 언제 창작되고 어떻게 필사되었을까? 고전소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필사본의 창작 시기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필사본 소설의 말미에 기록된 필사기를 통해서 대체적인 필사 시기는 확인할 수 있다. <유취현전>의 이본에 등장하는 필사시기는 ① (1860년, 1920년), ③ (1877년, 1937년), ④ (1849년, 1909년), ⑥ (1851년, 1911년), ⑦ (1881년, 1941년), ⑧ (1858년, 1918년) 등이다. 필사시기가 60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어느 시기에 필사되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정을선전>의 ⑨ (1843년, 1903년)와 ⑩ (1853년, 1913년)의 필사시기와 비교해보면 <유취현전>이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유취현전>은 <정을선전>보다 후대 작품으로 생각된다.

<유취현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필사시기는 1900년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후기 가정소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가정소설 연구를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 가정소설은 17세기 후반부터 창작되어 18·19세기를 거치면서 20세기까지 왕성한 인기를 얻었던 갈래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1850년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시대에 계모형과 쟁총형 가정소설을 일관된 갈등구조 속에 통합하려고 했을까 의문스럽다. 따라서 <유취현전>의 필사 시기는 대체로 1900년을 전후하여 필사되고 유통된 것으로 짐작된다.

### III. 작품의 구조적 특징

#### 1. 계모형 구조

<유취현전>의 전반부에 내포된 계모형 구조는 전처의 딸과 후처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문제삼고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유승상 부부는 슬하에 혈육이 없어서 근심하다가 태몽을 꾸고 유취현을 낳는다. 그런데 부인 최씨는 딸을 낳은 뒤에 남편에게 후사를 위해서 재취하라고 당부하고 세상을 떠난다. 후처로 들어온 계모 정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 딸을 모해한다. 이러한 전처의 딸

과 후처간에 벌어지는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작은 <장화홍련전>이다.

<유취현전>의 전반부 갈등구조는 <장화홍련전>의 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장화홍련전>은 초기 가정소설로 단일한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면, <유취현전>은 복잡한 갈등구조를 내포한 후기 가정소설이다. 또한 <장화홍련전>은 칠산 지역의 송사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인데 반하여 <유취현전>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작품의 형성 배경과 서사 단락의 편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갈등구조는 유사하다.

- (가) 주인공 유취현의 출생과 생모의 죽음
- (나) 계모 정씨의 영입과 자녀 출산
- (다) 계모가 유취현을 학대하고 모해함
- (라) 유취현의 결혼과 죽음
- (마) 남편의 도움과 취현의 환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취현전>의 전반부는 <장화홍련전>과 유사하다. 아래에 제시한 <장화홍련전><sup>28)</sup>의 서사구조 ①~⑦과 <유취현전>의 서사구조 (가)~(마)는 거의 일치한다. 다만 <장화홍련전>이 완결된 작품인데 반하여, <유취현전>은 작품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취현전>의 전반부는 <장화홍련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은 계모가 전처 딸 취현을 학대하는 이유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모는 슬하에 1남 1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딸을 모해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처의 딸보다 후처의 아들이 더 중요한 게 조선후기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하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유취현전>의 계모는 <장화홍련전>의 재산 상속이나 가계 계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7) 김재용, 앞의 책, 113~117쪽.

28) 이원수, 『고전소설의 작품세계의 실상』(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394쪽. ① 주인공(전처자식)이 어릴 때 생모가 세상을 떠나다. ② 계모가 들어오다. ③ 계모가 주인공을 학대하고 모해하다. ④ 주인공이 집에서 추출되다(죽임을 당하다). ⑤ 계모의 모해가 폭로되고 주인공의 억울함이 밝혀지다. ⑥ 계모가 처벌되다. ⑦ 주인공이 다시 환생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누리다.

계모가 전처의 딸을 학대하는 구체적인 사건은 ㉔와 같이 청혼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상이 유취현에게 청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모는 제 딸을 먼저 보여준다. 이러한 계모의 행동 속에는 자기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계모는 자기 딸이 청혼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㉕, ㉖처럼 유취현을 모해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청혼을 받지 못한 것은 계모의 존재 의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아버지와 배다른 어머니의 자녀가 청혼 경쟁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성을 결정하는 대리전이나 마찬가지이다. 청혼의 실패는 지금까지 쌓아온 어머니의 자격과 품성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계모의 딸이 청혼을 받지 못한 이유를 유취현 때문으로 본다는 점이다. 만약 취현이 없었다면 당연히 자기 딸이 배필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모해가 시작된다. 적어도 계모는 전처의 딸을 비교적 잘 돌보았는데, 청혼을 계기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적극적으로 모해하기 시작한다. 계모가 비상을 넣은 밥을 만들어 죽이려는 계획은 바람이 불어 밥에 먼지가 들어가 실패한다. 이러한 단락은 모든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모는 비상을 넣은 소주와 노비를 시켜 전처의 딸을 살인하는 적극성을 띠게 된다.

(가) 또 비상소주를 꾸와 남 모리기 장방안의 숨계눗코 너일밤의 죽이리라  
호고 이날 정부인니 일가 틱의 제사가고 읍드니 잇썌 경선니 서당의 갓다가 죽  
의 도라와 방안의 드려와 보다가 장방문을 열고 소주병을 너여 쥬일호 일빅을  
먹고 즉시 죽난지라 잇썌 부인니 죽의 도라와 방문을 열고 보니 경선니 장방  
문을 열고 소주병 너여 젓티눗고 죽은난지라 급피 드려가 소주병을 감초 경선  
니 죽언다 호고 우난지라<sup>29)</sup>

(나) 오날밤의 칼노 목을 질너 취현을 쥬이리라 호고 독함을 이기지 못호드  
라...이날밤의 정부인니 칼을 품의 품고 노복 돌춘을 불너 전 빅양을 쥬고 이  
로디...칼을 들고 소지 방의 드려가 경의를 질너 죽이쥬나...어미 쥐로 죽겨구  
나 돌춘니 신치를 못겨지고 남경수의 옛코 도라오니...부인니 나와 소제 즈난  
별당문을 열고 보니 경의난 업고 취현만 잇난지라 천지 망극호야 아모리할쥬

29) 계명대본 <유취현전>, 6~7쪽.

을 모로더라 승상과 노복이 다 알게로 간부를 다라 도망흐엿다 흐드라<sup>30)</sup>

계모의 적극성이 오히려 자기 자녀만 희생시키는 엉뚱한 결과로 마무리된다. 유씨의 후사를 계승할 아들의 죽음은 계모의 위치와 존재 여부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다. 계모가 유씨 집안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된 계모는 자기 딸이 간부를 따라 갔다고 변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 (나)의 단락이 <유취현전>에 첨가된 것으로 보아 계모의 악행에 대한 경계를 뚜렷이 보여준다. 전처 딸을 모해하다가 엉뚱하게 제 자녀만 죽이게 된 계모는 더욱 흉악한 인물로 변모한다.

지금까지 계모의 모해는 유취현의 제거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유씨 가정의 패망으로 확대된다. 전처 딸의 사망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데 반하여, 유씨 가정의 패망은 집단의 영역에 속한다. 계모는 유취현 제거에 실패하여 자신의 존재 의의까지 위협받는 상태에서 유씨 가정을 패망시킬 수 있는 흉계를 꾸민다. 그래서 선택한 흉계는 바로 유취현의 결혼식에서 음부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취현의 죽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유씨 가문까지 패망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후기 여성의 정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한편 과거에 급제한 이적은 유취현과 결혼했으나, 계모는 ㉠와 같이 돌춘을 시켜 유취현이 간부임을 폭로한다. 첫날밤에 신랑이 도망간 사건에 대하여 유승상은 딸에게 화를 내며 책임을 추궁한다. 유승상은 딸에게 무슨 사연이 있음을 알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아버지는 딸의 억울한 심정을 왜 밝히지 않았을까. 첫날밤에 신랑이 도망친 사건의 책임을 모두 딸에게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첫날밤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유취현이 자결하여 계모의 목적이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모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계모는 자기 딸과 이한림이 결혼하고, 아들은 유씨 가문을 계승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듯하다. 계모의 모해가 성공했음에도 얻은 것이 없는 점은 갈등의 치열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주인공 취현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다. 취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

30) 계명대본 <유취현전>, 8-9쪽.

혼 풀어주기 대목이 이어진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으레 그렇듯이 최현에게도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㉔처럼 죽은 딸의 시신을 염습하지 못해 난감한 처지에 빠진 것이다. 이것은 원한을 품고 죽은 여성이 결백을 주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부친은 딸의 억울한 심정이 담긴 혈서를 보고 격분한다.

승상이 바다보니 그 스연의 옛츄츄 흐드라 승상이 보고 기가 막커 분흐물 이기지 못흐드라 죽시 닉당의 드러가 정부인을 죽이려할지 공중의 소지 혼명이 울면흐난 마리 아분님은 죽이지 마옵소서 닉 설치 닉흐리다 흐고 이려흐든 니 정부인니 방의 잇다가 박기나와 입으로 피을 토흐고 죽난지라 쏘흐 노복 돌춘도 즉살흐여 죽고 승상도 기절흐드라 일가친척과 노복이 승상을 염습흐야 선산의 안장흐고<sup>31)</sup>

그때 죽은 최현의 원혼이 나타나 부친을 만류 한 뒤에, 자신이 직접 계모와 노복 돌춘을 처벌한다. 억울하게 죽은 최현의 원혼이 계모와 노복을 징벌하는 것도 초기 가정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가정소설에서 악인의 처벌은 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화홍련전>에서도 송사를 통해서 원혼을 풀어준다. <유취현전>은 유취현의 혼령이 악을 징벌할 때 부친도 기절하여 숨을 거두는 대목이 등장한다. 악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처의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가장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도 있다.

계모형 가정소설에서는 부친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비록 부친이 딸의 억울한 심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대목은 낯설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주위의 가족들이 즉사하여 기절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완화되어 있다. 결국 부친이 함께 숨을 거두어 유씨 집안은 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현의 원혼은 풀리지 않아서 밤마다 동네를 떠돌아다녀 마을이 패망된다. 원혼 때문에 패망한 마을의 이야기는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점차 확대된다.

---

31) 계명대본 <유취현전>, 17쪽.

잇씩 세월이 불평하고 흥연니 조심하고 빅성이 도탄중의 드러 상하분간니 업  
 난지라...이적을 톱축호옵소서...천조...청주어스로 제수호시고 내려가 도찬중  
 의 든 빅성과 탐관포리와 삼강오륜과 상하분간을 영역히 귀별하라 호신디...  
 남양쌍의 다다르니 남양티수 탐관할시 그픽을 출도호고 삭탈관즉호고 포리를  
 분간호야 죽님촌을 다다르니 이전 집이 업고 다만 일가 초가 잇난지라<sup>32)</sup>

위와 같이 여성의 정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과급된다. 계모의 모함으로 간부의 누명을 입었지만, 여성의 훼손은 가문을 패망시키고 사회의 윤리까지도 혼란하게 만드는 위력을 보여준다. 나아가 국가에 흥년이 들고 백성이 도탄에 빠져 상하분간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㉞처럼 천자는 이적을 청주어사로 보낸다. 어사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탐관오리를 처벌하며 삼강오륜과 상하분간을 바로잡는다.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킬 수는 있어도 여성의 정절 훼손에 대한 명예회복은 쉽지 않았다. 유취현의 누명을 씻어주기 위해 패망한 죽림촌을 찾아간 어사는 그간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런데 ㉞와 같이 유취현은 어사를 만나지 않는다. 어사는 유취현의 사정을 상소하여 천자가 최현의 정절을 칭찬하며 관리를 보내 원정을 풀어준 다음에 남편을 만난다. 이러한 대목은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자결한 여성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천자의 공인이 필요함을 뚜렷이 보여준다. 여기서 여성의 정절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당대의 사회의식을 엿볼 수 있다. 낭군의 도움과 천자의 공인을 통해서 누명을 씻은 유취현은 환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연을 들은 천자는 ㉞처럼 유부인과 장부인을 각각 충열부인, 정열부인으로 봉한다. 남편의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은 최현은 환생하여 충열부인에 봉해졌으나, 남편이 장씨와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구조로 볼 수 있는 전반부이다.

## 2. 쟁총형 구조

<유취현전>의 후반부는 쟁총형 가정소설의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쟁총형

32) 계명대본 <유취현전>, 17~19쪽.

갈등구조는 처첩 또는 처처 사이에 발생하는 애정다툼이 문제의 핵심을 차지한다. 신분이 다른 처와 첩의 애정다툼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작품으로는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러한 쟁총형 갈등구조에는 처처간의 갈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유취현전>은 처처간의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초기 가정소설에서 처첩간의 갈등이 핵심을 차지한다면, 후기 가정소설인 <유취현전>은 처처간의 갈등구조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바) 처·처간의 다툼
- (사) 남편의 출전과 영웅적 군담
- (아) 처·처간의 음모와 고난
- (자) 남편의 귀환과 위기 해소
- (차) 부귀공명과 최현에게 친정부를 맡김

<유취현전> 후반부의 갈등구조는 (바)~(차)이다. 초기 가정소설인 <사씨남정기>의 구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처첩과 처처간의 문제는 축첩제와 다부제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사씨남정기>는 처첩간의 쟁총과 후사문제를 다룬다면, <유취현전>은 처처간의 쟁총과 후사문제를 다룬다. 두 작품은 쟁총과 후사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사씨남정기>는 처와 첩의 신분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면, <유취현전>은 이러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취현전>에 등장하는 두 부인의 선후관계는 결혼의 선후에 따라서 임시로 정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두 부인은 남편을 사이에 두고 애정다툼과 아들 낳기 경쟁에 돌입한다.

후반부의 갈등구조의 핵심은 이적이 두 부인을 거느리고 살아야하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양반이 두 명의 처와 함께 생활하는 다처제가 문제이다. <유취현전>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두 명의 처를 거느리게 되었다. 다행히 남편이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남편이 전장으로 떠나면서 갈등은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부인들의 다툼은 주로 남편의 편애, 아들 낳기, 임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계를 계승할 아들의 출산으로 귀결된다. 특히 시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낳으면 선영 봉제사를 맡기겠다는 선언이 있는 뒤로

갈등은 침예화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은 부인은 제사권을 포함한 가정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전장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후사를 이어줄 손자의 탄생을 기원한 것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㉔처럼 충열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은 정열부인을 자극하게 마련이다. 정열부인은 충열부인을 모해하기 위해서 시비와 함께 흥계를 꾸며 간부의 누명을 씌운다. 그런데 정열부인은 처음부터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전반부 계모형 갈등구조에서 계모의 성격이 상황에 따라 변모했듯이, 정열부인은 아들을 갖지 못한 위기 의식에서 충열부인을 모해한 것이다. 충열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정열부인은 수평적 선후관계에서 첩으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존재까지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정열부인은 수평적 선후관계가 수직적 신분관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신한 충열부인을 모해한 것이다.

정열부인은 ㉕처럼 시비 금선을 속양해 주는 대가로 음모에 끌어들인다. 그 음모는 충열부인이 외간 남자와 간음한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열부인의 흥계에 속은 시어머니는 충열부인의 간음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적극 나선다. 그런데 유취현을 구해준 인물이 시비 금연이다. 서사단락 ㉖과 같이 금연은 충열부인의 편지를 오빠에게 전달하여 이원수에게 전해주게 한다. 또한 초매와 함께 남산 뒤에 은신처를 만든 다음 충열부인을 대신해서 자결하는 충성을 보여준다. 그 덕분에 충열부인은 은신처에서 아들을 낳았으나 사경을 헤매게 된다. 시어머니는 자결한 충열부인을 매장했으나, 시비 금선에 의해서 거짓임이 들통난다. 이러한 간음죄를 둘러싼 고부간 갈등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며느리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따라서 정절 고수와 훼손의 명분은 당대의 여성 독자층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장에 도착한 이원수는 ㉗처럼 오방신장을 불러 도술전을 펼쳐 흥노를 물리치는 군담을 보여준다. 원수는 흥노왕에게 항복을 받고 다시는 침범하지 말라고 질책한 뒤에 돌려보낸다. 노왕은 원수의 용맹과 충성을 칭찬하며 벼슬을 내린다. 원수는 전장에서 큰공을 세우고 귀환하다가 누명을 벗겨달라는 충열부인의 꿈을 꾸다. 급히 고향으로 돌아오던 원수는 금월을 만나 아내의 편지를 받고, 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기를 구해 보살핀다. 그리고 시비 금선을 궁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힌 뒤에 ㉘와 같이 정열부인과 금선을 죽인다. 원수는 이 사실을 천자에게 알려 금연과

초매를 칭찬하며 충노비를 세운다. 또한 천지는 전장에서 공을 세운 원수에게 상장군 겸 승상의 벼슬을 내린다.

한편 시어머니는 손자를 임신한 것보다 집안의 유지와 번창에 직결되는 정절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열부인의 흉계에 속아 손자를 임신한 며느리를 죽일 뻔하여 식음을 전폐한다. 시어머니는 비록 태기가 있다 해도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간 남자와 간통하는 일은 대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그만큼 양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정절의식을 새삼 일깨워준 것이다. 이러한 단락은 작품 초반부에서 딸의 억울함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부친이 기절하여 죽는 대목과 유사하다. 그런데 후반부는 ㉠과 같이 피해자인 충열부인이 시어머니를 위로하여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변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충열부인의 효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처처갈등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락에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선녀가 된 충열부인의 모친은 딸에게 백골과 선산수호를 맡기며 ‘친정부’를 전해준다. 비로소 생전에 모친이 아들을 낳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이다.

최부인니 왈 너 세상의 못다살고 죽은 혼백이 선여가 되야 너 하나로 밋드라 세상의 귀인니 되야 빗난 일흠을 듯고 영낙과 수복을 전지 무궁헝기로 겸지헝 니 부디 빅즈천손헝고 만디 유전헝라 헝시고...빅골과 선산수호를 너의게 오날날 전헌다 헝시면 보칙 혼권을 주시면 빅변 부탁헝시고...나의 심전의 기러든 원을 주 난지라...충열부인니 씨더른니 모친은 간디업고 남가일뫼이라 정신을 진정헝고 이 려나 보니 칙헝 권만 석함의 잇난지라 칙을 피어보니 친정부 칙이라<sup>33)</sup>

이러한 ‘친정부’는 아들을 낳지 못한 모친의 책임감을 딸로 하여금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성이 아들을 낳아 후사를 계승해야 한다는 유교 윤리의 완강함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와 개화기를 거치면서 당대의 시대 변화에 맞게 여성의 역할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친정부’ 대목이 유취현의 꿈으로 처리되어 있어 아쉽지만, 당대의 변화된 여성의식을 담아내

33) 계명대본 <유취현전>, 56~57쪽.

고 있음은 분명하다. 조선 후기 남성 위주로 진행된 선영 관리와 봉제사를 출가외인인 유취현이 담당하는 장면은 여성의 역할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유취현과 이적은 ㉔와 같이 부귀공명과 자손의 번창을 통해서 천상적 인물의 영광을 지상에서 누리게 된다.

### 3. 여성 수난의 구조

<유취현전>은 가정소설의 후기 유형에 속하면서도 전·후반부가 지향하는 세부적 의미가 다르다. 왜냐하면 전·후반부에서 계모와 전실 자녀의 갈등과 처·처간에 후사를 계승하기 위한 갈등을 각각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의 전·후반부의 갈등구조가 긴밀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갈등구조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취현전>은 계모형과 쟁총형 구조를 여성의 수난을 확장하는 구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혼담, 결혼담, 군담 등을 첨가하고 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㉔~㉔까지이다. 전반부는 ㉔~㉔이고 후반부는 ㉔~㉔이다. 이러한 작품 내용은 (가)~(차)의 갈등구조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유취현전>의 갈등구조는 전·후반부로 구분되면서도 여성 수난을 확장하는 구조로 재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서두에 여성이 먼저 등장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청혼과 결혼 대목을 첨가하여 구조적 변모를 보여준다. 결국 <유취현전>은 기존의 가정소설의 갈등구조를 수용하여 여성 수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유취현전>의 구조적 통일성을 지탱해주는 대목은 (가), (바), (차)이다. 작품의 서두에 해당하는 (가)에는 ㉔와 ㉔의 내용이 해당된다. 슬하에 자녀가 없었던 유승상 부부는 기차치성과 태몽을 꾸 다음에 얻은 자녀가 딸이었다. 이 때문에 유씨 가문을 계승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계모를 영입한 것이다. 17년 동안 갈등이 없던 계모는 ㉔처럼 청혼담을 계기로 (다)의 계모형 갈등을 유발한다. 그래서 (라), (마)처럼 유취현의 결혼과 죽음 및 환생 과정이 등장한다.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연결되는 (바)를 주목해야 한다. (바)는 (가)~(마)와 (바)~(차)의 갈등구조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은 계모형 갈등의 해결과 처처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분기점 역할을 한다. 마지막 대목 (차)는 ‘친정부’를 통해서 구조적 통일성을 완성하는 장면이다. 이것은 초반부에서 모친이 아들을 낳지 못한 원을 딸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보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당대의 여성들이 출가외인이라는 유교 논리에서 한층 진전된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차)는 남성 위주의 선영관리와 봉제사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역할변화를 뚜렷이 보여준다.<sup>34)</sup> 이러한 ‘친정부’ 대목은 기존의 가정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가)~(차)와 같이 여성의 수난을 확장하는 갈등구조를 보여준다.

<유취현전>은 (사)와 같이 영웅적 인물의 군담이 첨가되어 있다. 후기 가정소설에 등장하는 군담은 작품의 흥미와 통속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취현전>의 군담은 전, 후반부의 구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목이다. 전반부 남성 주인공의 비범성이 과거급제로 나타난다면, 후반부의 영웅성은 ①, ⑤처럼 군담을 통한 변방의 평정과 신분상승으로 이어진다.<sup>35)</sup> 이러한 구조적 통일성이 한림의 등장과 유취현의 이야기가 하나의 구조로 짜여지면서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유취현전>의 군담은 단순한 흥미보다는 사건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상에서 <유취현전>은 계모형과 쟁총형 가정소설의 갈등구조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수난을 확장하는 구조로 재통합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계모형과 쟁총형의 구조를 수용하여 <정을선전>이 형성되고 여기서 <유취현전>과생되면서 여성의 수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취현전>은 기존의 권선징악의 윤리식을 강조하면서도 여성 향유층의 의식을 반영하여 여성의 역할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34) 친정 부모의 죽음과 슬하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시집간 주인공이 ‘친정부’를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여성이 친정의 제사와 선영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이런 일은 주로 친정의 남자 친척들이 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35) 이런 점에서 <유취현전>의 후반부를 영웅소설의 구조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런데 영웅소설의 유형구조로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이한림의 기자치성과 출생 대목의 생략, 영웅적 활약도 미약하거나 축약되어 있다.

#### IV.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

<유취현전>은 기존 가정소설과 고전소설의 영향을 수용하여 여성의 수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모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후대적 변모를 거치면서 계모형과 생충형의 유형구조를 하나의 갈등구조로 재창출하고 있다. 새로운 갈등구조는 작품의 내용을 일관된 서사구조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유취현전>이 기존 가정소설의 유형에서 구조적 차용을 했다하더라도 여성의 수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모와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 때문에 여성의 관심을 반영하는 청혼담과 결혼담도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독자층을 겨냥한 새로운 단락의 첨가는 작품의 구조적 변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을선전>에는 청혼담과 결혼담에 남성 주인공의 상사병 대목과 여성 주인공의 추천 대목이 첨가되어 있다. 유승상의 회갑연에 참석한 정을선은 그녀를 뛰고 있던 유취현을 보고 상사병에 걸린다. 그 덕분에 정을선은 유소저에게 청혼하여 결혼하게 된다. 이러한 추천 대목과 상사병 대목은 <춘향전>의 이도령과 춘향이 광한루에서 만나는 장면과 유사하다. 그런데 <유취현전>에는 <정을선전>과 달리 추천과 상사병 대목을 생략하고 사건 전개에 빠대만 첨가되어 있다. 이러한 혼사장에담은 여성 독자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춘향전>의 추천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을선전>은 여성의 추천 대목과 남성의 상사병 대목을 차용했다면, <유취현전>은 이러한 대목을 생략하여 간결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결혼담은 <정을선전>에서 <유취현전>으로 변모하면서 신부의 신분이 점차 귀족층에서 양반층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유취현전>을 향유했던 여성 독자층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유취현전>은 여성 주인공이 친정의 일을 맡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된 의식을 보여준다.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친정부’를 전해주어 대소사를 맡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고전소설로 확대해도 출가외인에게 친정의 일을 맡기는 장면은 분명 진전된 의식이라 생각된다. 작품에 첨가된 ‘친정부’ 대목은 조선후기 남성 위주의 제사와 선영관리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여성도 친정의

36) <정을선전>에는 왕족과 혼인하는 대목이 등장한다면, <유취현전>에는 양반과 결혼하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일을 담당해야 함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남성의 전유물인 선영관리와 봉제사를 여성이 담당한다는 의식의 변화는 주목된다. 특히 조선후기에서 개화기로 이행하는 사회적 변화와 작품의 구조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당대의 변화된 여성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여성의 역할 변화와 남성 중심에 대한 비판을 결말 대목에서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성격 대립을 통해서도 가정소설의 지평을 확장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가정소설과 달리 인물의 성격 변화가 등장한다. 유취현과 결혼한 남편은 가해자와 협조자의 양면성을 내포한 인물이다. 가해자의 면모는 결혼 첫날밤 계모의 흥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집을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때문에 후반부에서 처처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협조자의 면모는 간부의 누명을 쓰고 자결한 아내의 원혼을 풀어주기와 재생, 아내와 아들 구하기, 간신의 처벌 등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남편의 양면성은 작품의 구조적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남편의 부재는 아내의 죽음과 위기로 연결된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여성의 수난이 강조되어 있어도 남편만 곁에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당대의 여성들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음을 표출한 것이다.

유승상과 시어머니도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간부의 모함을 받은 딸과 충열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 유승상은 딸의 유서를 보고 계모를 문초한다면, 시어머니는 아들의 귀환으로 정열부인에게 속았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유승상은 계모가 처벌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시어머니는 정열부인이 처벌되어도 죽지 않는다. 다만 후사를 계승할 아들을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식음을 전폐할 뿐이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원혼이 된 유취현이 부친의 죽음을 방치한 점은 후반부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가장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하다가 며느리의 효성으로 화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효성은 친정보다 시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악인으로 등장하는 계모와 정열부인은 처음부터 악행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기심과 아들 낳기 경쟁과 같은 작중 상황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결정된다.

계모는 인물됨이 부족한 자기 딸 때문에 전실 딸을 모해하려다 실패하자,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악행을 실천한다. 정열부인은 수평적 선후관계에서 수직적 신분관계로 전락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열부인을 모해한다. 계모는 전실 딸과 자기 자녀를 모두 죽여 유씨 가정의 패망에 대한 책임으로 천벌을 받는다. 정열부인은 충열부인을 모해한 죄로 처참하거나 사약을 내리고 혹은 내쳐서 굶어죽게 한다.<sup>37)</sup> 이렇게 동일한 흥계를 꾸밈음에도 계모와 정열부인에 대한 처벌은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정열부인은 유씨 가정을 패망시킨 계모에 비하여 악행의 책임이 다소 가볍기 때문이다.

노비들의 인물 성격은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행동을 보인다. 주인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금연, 초매와 속양의 대가로 악인을 도와주는 금선, 돌춘을 주목해야 한다. 악인은 선인을 모해하기 위해서 시비들의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시비들도 악인이 제시한 속양과 금전적인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주인공을 모해하는 데 협조한다. 이것은 당대의 시비들에게 속양이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드러낸다. 한편 주인공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한 노비들에게는 제사를 지내주거나 충노비를 세워준다. 아울러 충성을 다한 노비의 가족들에게도 속양을 시켜준다. 이러한 시비들의 긍정과 부정적 행동은 신분제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상에서 <유취현전>은 기존의 가정소설을 수용했으면서도 여성의 수난을 확장하는 구조로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청혼담, 결혼담, 군담 등과 같은 내용이 첨가되었다. 특히 남성의 영역인 선영관리와 봉제사를 출가외인인 여성이 담당하는 장면은 여성의식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 대립을 통해서도 기존의 가정소설과 다른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취현전>은 <정을선전>에서 파생되었지만, 여성의 역할 변화와 남성이 독점했던 선영관리와 봉제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인물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여성의 인식변화를 통해서 가정소설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소설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7) 작품의 후반부에서 정열부인을 처참하게 하는 경우는 <유취현전>과 계명대본 <정을선전> 등이고, 정열부인을 사약하는 경우는 활자본 <정을선전>과 박순호본 <정을선전> 등이다. 그리고 정열부인을 내쳐서 굶어죽게 하는 경우는 허버드본 <정을선전>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유취현전>의 구조적 특징과 가정소설의 지평 확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정을선전>에서 파생되어 1900년대를 전후하여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유취현전>과 <정을선전>은 동일한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단락의 침착이 나타난다. <유취현전>의 이본은 10종으로 모두 필사본으로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작품의 발굴이 쉽지 않아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가정소설의 두 유형인 계모형과 쟁총형의 구조를 차용하여 여성의 수난을 확장하는 구조로 재창조한 점에서 주목된다.

<유취현전>은 가정소설의 양대 갈등구조를 수용하면서도 재창작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인기를 얻었던 군담소설, 적강소설, <춘향전>의 추천대목과 암행어사대목, 편지 대목, 애정소설과 혼사장애담 등과 끊임없는 교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의 구조적 충돌과 변모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여성의 수난이 확대되는 구조로 재창조되었다. 그리하여 <유취현전>은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 표제로 선정되고 남성보다 여성 주인공의 탄생담이 작품에 먼저 등장하는 변모를 보여준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정을선전>의 남성중심에서 파생되어 여성중심적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등장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가정소설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여성의 수난을 확장하는 갈등구조에서는 남편의 존재 유무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여성의 고난이 강화될수록 남편의 협조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유승상의 인물성격과 악인으로 등장하는 계모와 정열부인의 지향점이 조금씩 다르다. 유승상은 사망하여 집안이 패망되는데 반하여 시어머니는 총열부인의 효열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계모는 천벌을 받지만 정열부인은 처참, 사약, 내침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을 패망시킨 계모의 죄를 응징함과 동시에 정열부인의 신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선악의 갈등에서 노비들도 긍정과 부정의 성격을 보여준다. 노비들은 한결같이 당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유취현전>은 필사본 유통을 통해서 당대의 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특히 조선후기 남성 위주의 선영 관리와 봉제사에 대한 비판과 처가의

대소사를 여성이 담당하는 대목은 당대 사회의 여성의식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변화는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덕목이고 고전소설의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후기 가정소설인 <정을선전>에서 여성의 수난을 확장하는 구조로 재통합하여, 여성의 역할변화를 내포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정소설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 참고문헌

- <유취연전>, <유취현전> 계명대 소장본.  
<유취현전>,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40권. 서울: 보경문화사, 1991.  
<정을선전>, <정을선전> 영남대 소장본.  
<정을선유취전> 54장, 정명기 소장본.  
<정을선전> 정문연 소장본.  
<정을선전> 104장, <유소저전> 71장, 하버드대 소장본.  
<정을선전> 66장, <정을선전> 61장, 계명대 소장본.  
<정을선전>,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10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정을선전>, 『한글 필사본 고전소설 자료총서』 74권, 88권, 89권. 서울: 오성사, 1986.  
<정을선전>,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18권, 50권. 서울: 경인문화사, 1993.  
<정을선전>, 『국문학 연구자료』 10권. 서울: 박이정, 1999.  
<취연전>,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74권. 서울: 보경문화사, 1991.  
<취연전> 58장, <유취현전> 연세대 소장본.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서울: 집문당, 1996.  
박태상,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8.  
우쾌제,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형성요인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9.  
이성권, 「가정소설의 역사적 변모와 그 의미」. 고려대 박사논문, 1998.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95.  
이원수, 『고전소설의 작품세계의 실상』.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 1991.

이원수, 「가정소설의 전개양상」, 『고소설사의 재문제』, 서울: 집문당, 1993, 325~326쪽.  
 임성래, 「<유취현전>고」, 『연세어문학』 17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52~55쪽.  
 조희용, 『고전소설 이본목록』, 서울: 집문당,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소설의 기초 연구』, 성남: 태학사, 2001, 429~430쪽.

### 국 문 요약

<유취현전>은 1900년을 전후하여 <정을선전>에서 파생된 필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계모형과 쟁총형의 갈등구조를 수용하여 여성수난을 확장하는 작품으로 재창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담소설, 적강소설, 애정소설과 혼사장애담, <춘향전>의 추천대목과 암행어사대목 등과 같은 내용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정을선전>에서 파생되었으나, 여성주인공을 표제로 선정하여 여성의 인식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유취현전>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변화를 보여준다. 유취현의 부친과 시어머니는 계모와 정열부인의 모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 책임으로 유승상이 사망하는 장면은 주목된다. 특히 유취현의 친절은 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는 자신의 효열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을 폐망시킨 계모의 죄를 응징함과 동시에 머느리 유취현의 효열을 부각한 것이다.

<유취현전>은 조선 후기 남성 위주의 선영관리와 봉제사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처가의 대소사를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출가외인인 유취현이 친정부를 책임지는 장면은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여성의 역할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취현전>은 여성 수난을 확장하는 갈등구조와 등장인물의 성격변화, 새로운 여성상의 제시 등을 통해서 가정소설의 지평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 투고일 : 2006. 1. 11.
- 심사완료일 : 2006. 3. 2.
- 주제어(keyword) : <유취현전>(Yuchoihyunjeon), <정을선전>(Jeongeulseonjeon), 이본(a different version), 계모형(a type of Stepmother), 쟁총형(a type of Competition), 여성수난의 구조(Structure of women's suffering), 가정소설(Family novel).